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배아닷시 스님 (스리랑카)

(3) 존재는 오온의 결합체 (사람)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정신 · 물리적 힘 일뿐

끊임없이 변하는 다섯무더기(오온)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정체를 위시한 사성체를 알자면,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 분명한 관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분명해졌습니다. 일상적 말로 우리는 흔히 '존재' 운운하지만, 궁극적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존재'는 있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정신 · 물리적 (psycho-physical) 힘 또는 에너지의 발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 힘, 또는 에너지는 무더기(繡)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다섯 무더기의 결합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무더기란 어떤 것들인가요?

불교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몸의 '정신 · 물리적 결합체(名色)'입니다. 먼저 '마음'은 그 구성 요소를 네 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첫째, 느낌인 '수(受)', 둘째, 감각적 인상(sense-impression), 심상 내지 관념, 그리고 개념을 말하는 '상(想)'과 셋째, 정신적 형성, 또는 행동 지향적 관념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 요소들을 말하는 '행(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識)'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비물리적 요소들인 이들 네 개의 정신적 그룹들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두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활동은 뇌 전하(腦電荷)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화학적 실험에 맡길 수도, 오관으로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의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성격과 구조와 작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뇌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의 위치와 구조와 작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의 지배하에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물의 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그들의 비밀과 의의(意義)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음이 사물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강연의 주제가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몸, 즉 색온에 대한 자세한 논점은 피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물질에는 사대(四大)가 있으며 사람의 몸은 이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대는 견고성, 유동성, 열 또는 온도 그리고 운동 또는 진동으로 풀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대는 통례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지(地), 수(水), 화(火), 풍(風)만은 아닙니다. 불교사상에서 특히 아비담마의 가르침에서, 사대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 지(pathavi), 즉 견고성은 팽창의 요소이며, 수(āpo), 즉 유동성은 응집의 요소입니다. 화(tejo)는 열 또는 온기의 요소입니다. 풍(vāyo)은 운동, 움직임의 요소입니다. 대상에 따라 이 네 요소 간의 우열의 기복은 있지만 우리가 대하는 모든 물질적 대상들은 이들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 가지 비물질적 요소들, 사람의 모든 정신과 정서의 전개 과정은 마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마노(mano), 짜따(citta), 윈나나(viññāna)라는 팔리어에 친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들 단어들은 때때로 이런 저런 맥락에서 마음(mind)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좀더 예민한 분들은 이 중 '윈나나'를 식(識-consciousness) 또는 인지식(認知知識-cognitive consciousness)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영어의 '마인드'란 단어는 윈나나(識) 뿐 아니라 마노(意)나 짜따(心)란 팔리어 단어의 의미 역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들 세 단어가 유의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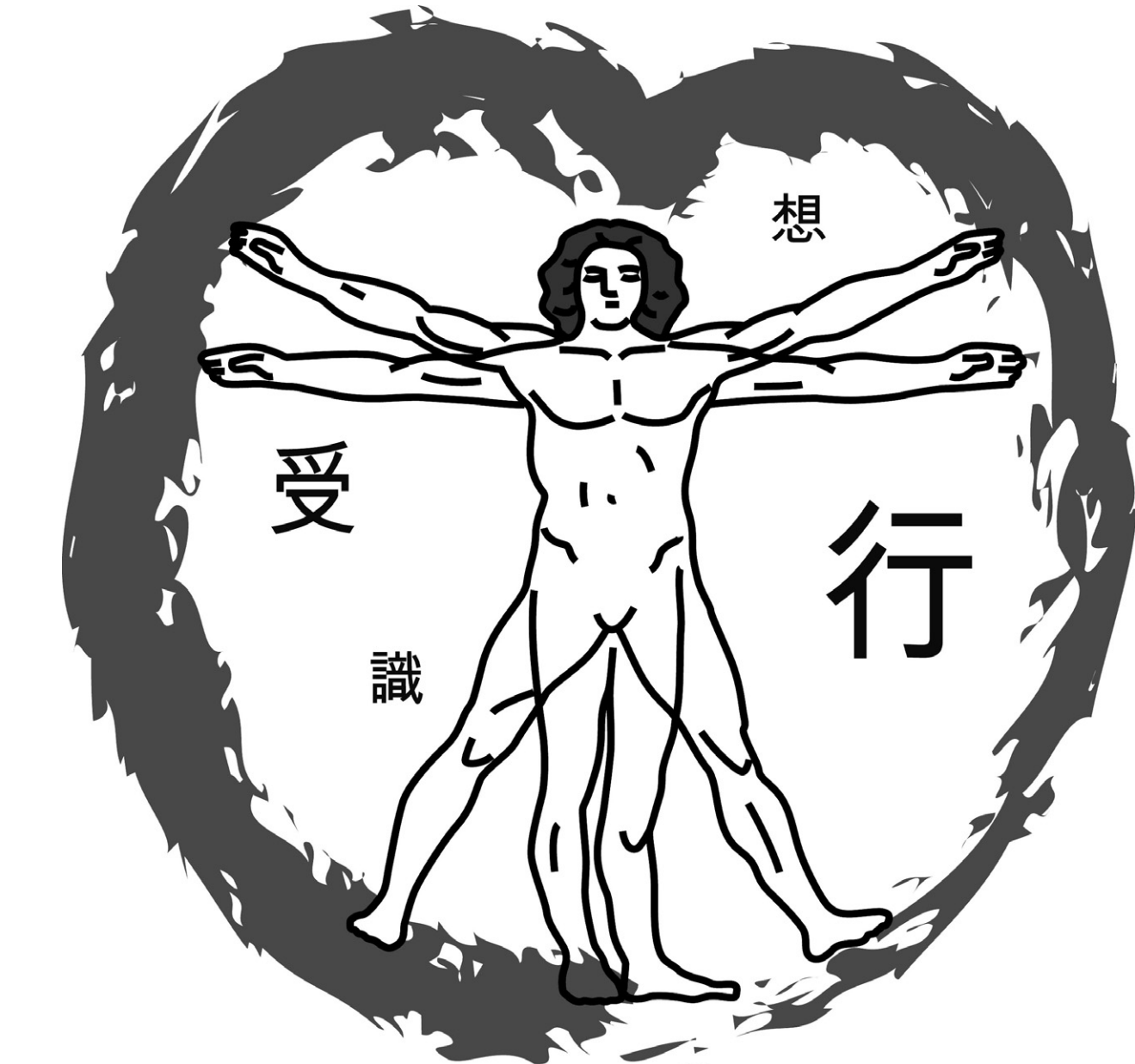
그렇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들은 제각각 뚜렷하고도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듯 다양한 의미상의 차이라야말로 심리학으로서의 불교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윈나나'라는 용어는 불교 심리학에서는 한층

깊은 함축을 지닌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잠깐 훑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마음(mind)은 "의식적, 무의식적 및 내재 심리적인 심리 구조와 과정의 유기적 총체, 여기서 내재 심리적이란, 심리학적이거나보다는 철학적인 면에서 이들 구조와 과정의 기반을 이루는 어떤 실재 또는 기체(基體: substratum)입니다. 다시 철학에서는 "마음은 주로 두 가지 뜻에서 쓰입니다. 1) 개별적 마음은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착상하고, 추론하고, 의도하는 등의 자아 또는 주체이며 개인의 신체적 유기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총칭적으로 생각할 경우 마음은 모든 개별 마음에 편재하며, 물체 또는 물질적 실체와 대조되는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 무더기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는 정신적 부분을 구성하는 네 가지 무더기, 즉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몸 합한 오온 受+想+行+識=마음[名] 지수화풍 사대요소=몸[色]

마음은 화학적 실험 오관 판별 할 수 없으나 두뇌는 위치 · 구조 작용 등 설명가능



기도 합니다. 먼저 수(受)는 인상과 관념에 수반되는 느낌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즐거운 것, 즐겁지 않은 것, 무덤덤한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느낌들은 접촉에 의해 생겨납니다. 형상 또는 가시적 대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만져지는 것에 닿거나, 정신적 대상(관념 또는 생각)을 인식함으로써 이해(緣) 사람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 느낌은 각기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을 통해 경험됩니다(불교심리학에서는 감각으로서의 마음은 의근(意根)으로서 제6의 감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눈, 형상, 그리고 보는 식(眼識)이 모이게 되면 이들의 만남을 촉(觸)이라 부릅니다. 촉은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리고 감각식(識)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어떤 힘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온(想)입니다. 불교 심리학에

서 상(想)의 기능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대상을 지각' 하는 것입니다. 상도 수와 같이 여섯 가지입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신체적 접촉 그리고 정신적 대상에 대한 지각입니다. 불교에서 쓰이는 지각은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서양의 철학자들이 사용한 지각과는 뜻이 다르며, 단순한 감각적 지각을 말합니다. 텔레파시나 천리안과 같은 초감각적 형태의 지각 역시 상온에 포함됩니다.

식의 기능인 알아차림(awareness: vijānana)과 상의 기능인 알아봄(recognition: sañjānana) 사이에는 일종의 유연관계(緣關係)가 있습니다. 식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거의 동시에 상은 그 대상의 특징적 표지를 찾아내어 그들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이 남다른 표지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실지로는 매번 알아차릴 때마다 그 대상을 알아보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만드는 것이 역시 상(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 즉 지각이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한

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상을 우리는 착각 또는 상전도(想顛倒)라 부릅니다. 우리 견해가 흐려지게 되는 것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입견, 집착과 혐오,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우리는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성질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신기루와 허상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기관은 우리를 기만하고 오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물을 적절한 관점에서 올바른 모습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물을 보는 방식이 비뚤어지게 [顛倒]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正見]만이 이런 환상을 제거하고 모든 드러난 모습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정한 본성을 인지하게끔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각과 전도의 구름을 벗어날 때 인간은 검은 구름을 벗어나 밝게 빛나는 보름달같이 참 지혜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의 내용입니다.

<p>불자 정보 880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p>	<p>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 • 3층건물중 3층 • 층평수 60평(베란다포함) • 법당(삼존불,각단탱화 등) 산신각, 용왕당 • 시설완비, 목관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주차장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16-614-8730</p>	<p>사찰 안내 •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리 • 대지 220평, • 묘사채 60평 • 법당 25평, 전제 1142평 • 해수관음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010-8801-3837</p>	<p>사찰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외산면 • 부지 1100평, 묘사채 45평 • 대웅전 18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4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629-1879</p>	<p>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약 70평(대적광전, 관음, 지장전) • 묘사채 약 100평 (방9, 주방, 창고) • 요양원, 고시원, 종단본사 등 다용도 • 대적불사 가능한 동남향 아산사찰임 • 꼭 매일 할 분만 방문 후 상담요망 • 가액: 5억원 (가격절증가능) 010-9217-4911</p>	
	<p>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마포구 • 석가 삼존불, 지장, 칠성, 신중, 산왕, 소불 120, 인등 • 방2, 주방, 거실, 다락방 • 실평수 35평, • 법당 20평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95만원 • 시설비 4500만원 • 목관 오시면 됨 010-7178-5892</p>	<p>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p>	<p>사찰 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 두서면 • 대웅전 20평, 목조, 기와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당 • 묘사채, 공방공간 • 대지: 1500평, 국유지 4만평 이용가능 • 포장도로, 1급수 계곡을 길게 접함 • 가액: 4억(약간절증) 010-5346-4138</p>	<p>별장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 • 면적: 500평, 건물 10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전원속의 포교원 갤러리 • 예술인의 집 최적임 • 가액: 8억 010-8676-2778</p>	<p>명당 절터, 포교원, 명당 사찰 양도합니다. 수도권과 대구 등 여러곳 나이가 많이 저렴하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010-9145-4984</p>
	<p>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2층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p>	<p>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내 • 지하철 2호선 3분거리, 교통중음 • 평수: 대지 62평, 주택 2층법당 1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108불, 인등 • 1층묘사채 18평 • (20평 전세 6500안고) 1억 7천 5백만원 018-564-3390 019-581-3081</p>	<p>사찰 안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묘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p>	<p>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묘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랑형(남향), 도랑기운 좋음 • 가액: 3억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p>	<p>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사가로 양도함 • 용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p>

미국이민 관계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평수 : 2080평 (현시가 40만~45만원)
- 법당, 삼성각, 석불 (지장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산신님)
- 마당 : 29년된 포대화상과 미륵부처님입상 (12자), 5층석탑
- 묘사채 방4개, 욕실 및 화장실 2개
- 23년된 일본법당도 인연이 되시는 분께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 야외위폐식당겸, 주차장 완비
- 박정희대통령 내외분 사당 25년째 모심
- 현재 실버타운(1200평)허가보류중
- 대출: 2억 5천 ~ 3억 가능
- 양도가액 : 7억 (경치 및 풍수지리상 1등 도량입니다)

연락처 011-252-7281